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 대륙위원회의 '경제적 강압' 주장은 흑백 뒤바꾼 것

대만 대륙위원회는 대륙이 대만산 민해방군 로켓군에 대해 면제 정책을 취소한 것은 정치적 리유에서 나온 것으로 대만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원 대만사

무관공실 대변인 주봉련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이른바 '경제적 강압' 주장은 완전히 흑백을 뒤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 신화넷

로켓군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 태평양 해역에 성공 발사

9월 25일 8시 44분경,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태평양 관련 공해에 모의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예정된 해역에 정확히 떨어뜨렸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로켓군의 연례 군사훈련으로서 무기장비의 성능과 부대 훈련 수준을 효과적으로 점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중국측은 사전에 이를 관련 국가에 통보했다.

/ 신화넷

조선

쿼드 계기로 진영 대결 추진한 미국 규탄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쿼드(4자 안전대화) 정상회의를 빙자해 '평화와 안정 수호'를 명분으로 실제로는 진영 대결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최근 미국은 쿼드를 계기로 집단적인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쿼드가 미국의 일극 지배 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의 팽전식 사고 방식과 진영 대결 정책의 산물인 쿼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국제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로 되고 있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의에 도전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미국의 진영 대결 정책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유해로운 근원이다.

/ 신화넷

향향 국제금융센터 지수 세계 3위

향향특별행정구의 국제금융 경쟁력이 재차 입증됐다.

24일, 영국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Z/Yen 과 중국(심수) 종합개발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제 36차 국제금융센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향향특별행정구의 국제금융센터 지수는 3월보다 한계단 상승한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1위

를 차지했다.

향향특별행정구정부 대변인은 향향이 비즈니스 환경·인적자원·인프라·도시 평판 등 항목에서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고 강조했다. 투자관리·보험업·은행업·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업 분야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그중 투자관리부문은 세계 1위로 올라섰다. 금융과학기술 역량 평

가에서도 5계단 뛰어오른 9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10대 금융과학기술센터에 이름을 올렸다.

대변인은 2023년말 향향의 자산관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 증가한 31조항달러를 넘어섰고 순자금류입은 3,900억항달러에 육박해 매년 4.4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또 향향특별행정구정부는

금융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식·대응·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다각도로 확장해 시장 효율 및 경쟁력 향상, 중국 본토와 향향간 금융의 상호 연결 심화를 통해 향향의 중국-해외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화넷

세계기능대회서 중국대표단 금메달 36매



제 47 회 세계기능대회 양식요리 챔피언 강방성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제 47 회 세계기능대회 3D 디지털 게임 예술 항목 우승자 무연정 (자료사진)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제 47 회 세계기능대회 보석 가공 항목 금메달 수상자 장우봉 (자료사진) / 북경일보넷



제 47 회 세계기능대회 CNC 밀링 항목 우승자 퉁위결 (자료사진) / 불산신문넷

아시아개발은행 : 올해 아태지역 발전도상 경제체 성장률 5.0% 유지



7월 18일, 인도네시아 반텐주 탕에랑에 위치한 회의전람전시장(ICE BSD)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제오토쇼를 방문한 관광객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신화넷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도상 경제체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월과 같은 수준인 5.0%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5일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 전망(9월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아태지역이 도전에 직면해있지만 경제 발전의 탄성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발전도상 경제체의 올해와 명년 인플레이션률은 각각 2.8%, 2.9%로 예측됐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동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4.6%, 4.5%로 전망했고 태평양도서국지역, 남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일부 지역의 성장률은 각각 3.4%, 6.3%, 4.7%로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경제학자 박지수는 국내 수요와 수출 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아태지역 발전도상 경제체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이끌어왔으며 명년까지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정상 궤도에 있도록 아태지역의 정책 제정자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지정학적 정치 국면이 악화되는 한편 불리한 기후 등 요소가 경제 침체의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동 등 지역의 충돌이 선박 운송 로선의 혼란, 유가 상승을 야기해 기타 대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더 넓은 범위의 지정학적 정치 긴장 국면이 고조되면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타격을 입어 지역 경제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966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다자 개발은행으로서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 발전 전망>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연도 경제 보고서로서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을 예측한다. / 신화넷

제 47 회 세계기능대회가 15일 저녁 프랑스 리옹에서 폐막되었다. 중국대표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6매, 은메달 9매, 동메달 4매와 우승상 8개로 메달 순위와 단체 총점 모두 1위를 따냈다.

이번에 출전한 중국 선수들은 '00 후' 기술장인들로 평균 나이가 22세이다.

세계기능대회는 현재 세계에서 지위가 가장 높고 규모가 가장 크며 영향력이 가장 큰 직업기능경기로서 2년에 한번씩 개최되며 '세계기능올림픽'으로 불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온 1,400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25만명 넘는 관중과 8,000명 넘는 등극 대표단이 견학과 교류에 참여했다. 중국대표단은 68명의 선수를 파견해 6대 분야의 전체 59개 종목에 참가했다.

중국 선수, 양식요리 챔피언!

대회에서 22세의 중국 선수 강방성이 세계기능대회 '양식요리 항목'에서 우리 나라 금메달 공백을 메우며 프랑스 리옹의 챔피언(冠軍) 시상대에 올랐다.

강방성은 "중국인도 세계 일류의 양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는 강방성의 6년 경기 경력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로운 도전이었다.

그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경기 첫날 과제로 10분내 요리 6가지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중에는 스테이크(牛排) 2가지와 생선구이, 치즈 불닭 토스트 샌드위치(芝士火鸡脆脆吐司三明治), 야채 샌드위치, 닭 가슴살 바게트(法棍) 샌드위치도 포함되었다. 그후의 경기 과정도 험난했다.

강방성은 경기 시작 시간을 놓쳐 다른 선수들보다 무려 25분이나 늦게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으며 규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더 빨리 메뉴를 완성했다.

강방성의 완성 속도나 메뉴의 품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일제히 감탄의 박수를 보내며 그를 '중국의 요리 로봇'이라고 불렀다.

"이 금메달은 지난 6년간의 노력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직업기능의 길을 걸어오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방성은 대회 성적을 집에 알렸더니 그가 기술을 배우는 것을 탐탁치 않아하던 아버지가 가장 먼저 격려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강방성은 요리사라는 길을 선택하면서 가족들의 심한 반대를 받았다. 가족들의 의구심에 대해 그는 설명보다는 모든 경기를 중요시하며 한차례 또 한차례의 좋은 성적으로 보여주었다.

6년간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강방성은 제 1회 전국기능대회, 중동유럽 국제미식조청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 3월, 그는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 47회 세계기능대회 '입장권'을 획득했다.

현재 강방성은 졸업해 학교의 양식 요리 교사가 되었다. 그는 국내적으로 양식요리 직업기능 인재가 보편적으로 부족하다며 '점수가 낮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바뀌길 기대했다.

게이머에서 세계 챔피언으로

올해 22살인 무연정은 제 47회 세계기능대회 3D 디지털 게임 예술 항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처음에 그는 단지 게이머(游戏玩

家)였다. 게임을 즐기던 데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떻게 세계 정상에 올랐을까?

무연정은 중경공상직업학원에 진학해 애니메이션(动画)을 전공했다. 그후 게임을 좋아해 3D 디지털 게임 예술 항목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2023년, 그는 제 2회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했다. 경기에서 비록 메달은 따내지 못했지만 향후 성장의 큰 원동력을 얻었다.

창작 과정을 돌아보면 그는 우선 세계 최고 3D 예술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최신 리념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힘썼다.

제 47회 세계기능대회 참가 자격을 따낸 후 그는 더 자물적으로 변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했고 끝내는 취미를 프로 수준으로 키웠다.

그는 게임을 하면서 늘 자신이 이 게임의 창작자라면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그는 학교 교수팀에 합류해 관련 기능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개구쟁이 소년에서 보석 가공 '국가대표 선수'로

북경의 장우봉선수는 북경공예미술고급기능공학교 보석설계및제작전공교사이다.

그는 처음 세계기능대회에 참가해 보석 가공 항목에서 금메달을 땀다. 동시에 보석 가공 항목에서 중국대표단의 금메달 공백을 메웠다.

어린시절의 장우봉은 '개구쟁이'로 자주 매를 받았다. 자신의 흥취를 찾은 후 그는 매일 10시간씩 보석 가공 연습을 했다.

"5년간 1만 8,000여시간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습했다. 심지어 밤을 쉰 때도 있었다."

이번 대회 경기 내용은 비너를 만드는 것이었다. 국제경기에서 중국 요소가 등장하니 장우봉은 매우 뿌듯했다.

장우봉은 작업대에 앉기만 하면 힘든 줄 모르고 한번, 두번, 세번... 완벽해질 때까지 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모든 게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 진짜 기술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같다."

치수 오차를 0.001 밀리미터 안으로 통제

이번 세계기능대회에서 광둥 선수 퉁위결은 CNC 밀링(数控铣) 항목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고찰하는 작품의 정밀도는 0.02 밀리미터이며 이는 머리카락 한가닥의 8분의 1에 해당된다. 치수 오차는 0.001 밀리미터 안으로 통제해야 한다.

퉁위결은 자는 저격총이나 마찬가지로 들고 있다. "부품을 가공할 때 자로 치수를 측정하는데 이때면 저격총을 쏘는 것처럼 세계 타깃이 모두 통일되어야 한다."

경기만 안정적으로 끝내려면 평소의 간고한 훈련을 떠날 수 없다.

처음 경기에 참가했을 때 퉁위결은 너무 긴장하여 어쩔 바를 몰라했다고 말했다.

경기만에 들어간 후 그는 새벽 한두시간씩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CNC 밀링 항목은 시차가 쉬우나 성적을 제고하기가 어려우며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기술 난제들이 많다.

그러나 이 21살의 소년은 이미 CNC 밀링 기술 영역의 '배터랑'이 되었다.

기술은 인생을 바꾸고 꿈을 이루어 준다. 중국 '00 후' 기술장인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 중국조선어방송넷